

# Issue Brief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No.69]

발행처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발행일 : 2023. 4. 26 | 발행인 : 민무숙

## 제주지역 양육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자녀 돌봄 공동체 특성과 시사점

손 태 주 · 강 문 실 <sup>1)</sup>

### 목 차

1. 들어가며
2. 제주지역의 수놓음돌봄공동체 변화 추이
3. 제주지역의 함께 자녀를 돌보는 수놓음돌봄공동체 특성
4. 논의 및 정책 시사점

1)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손태주 정책연구실장,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강문실 센터장



## 1. 들어가며

- 정부는 지난 1월 국정과제인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추진과 연계하고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함(여성가족부, 2013. 1. 26.일자 보도자료)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의 3대 목표 아래,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등 5개 대과제로 구성함
  - 그 중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대과제에는 '아동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보육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 제고 및 '다양한 양육자 지원 확대'를 위한 종일제 보육 접근성 내실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다양한 양육자 지원 강화,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돌봄 지원 강화 등의 세부과제로 구성하고 돌봄 지원을 강화해 나감
-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민선8기 도정의 주요 정책 및 도민의견과 지역특성 반영한 제3차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6)을 수립하고 양육친화 문화 조성을 강화해 나감
  - 제3차 제주형 양성평등 기본계획인 '성평등 빛나는 제주'는 '함께 만들어 가는 성평등 제주', '성평등한 고용환경 함께 돌보는 제주',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의 3대 목표 아래, 6대 전략, 17개 시행과제로 구성·추진함
  - 특히 자녀 양육 관련 '제주형 돌봄가족친화체제 구축·운영'을 위해서는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 체제 구축·운영, 가족·양육 친화 문화 조성 등의 시행과제에 따른 돌봄공동체 발굴·지원 사업 추진을 기반으로 양육친화 지역사회 문화 조성을 제고해 나감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국가 여성정책의 근간이었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2015.7.1.)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2016년 제1차 제주형 양성평등정책인 '제주처럼' 프로젝트로서 생활체감형 가족정책 사업들을 실행하기 위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세워짐
  - 센터는 도민이 체감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의 큰 틀에서 사업을 추진할 목적에서 타시도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및 돌봄 공동체 발굴·지원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며 일·생활균형지원과 안심하고 편안한 양육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맞벌이 가구, 다문화 가구, 한부모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조)부모들이 함께 자녀를 돌보는 수놓음돌봄공동체 확산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통해 2022년 돌봄공동체 참여자 대상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의 95.7%가 돌봄 공백 보완 및 양육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수놓음돌봄공동체의 변화 추이와 2022년 공동체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을 토대로 돌봄공동체 특성을 살펴보고 지역사회의 양육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함

## 2. 제주지역의 수눔음돌봄공동체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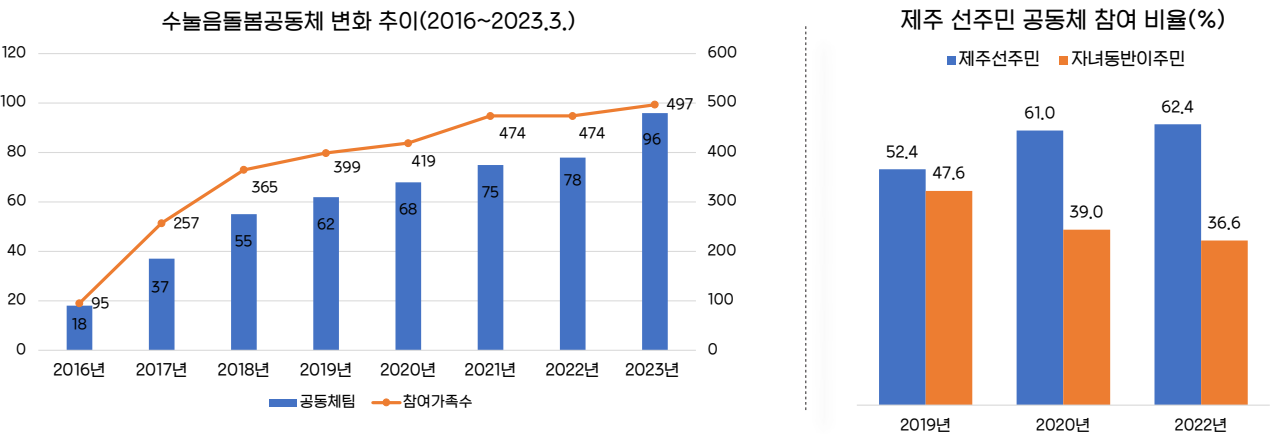
### ■ 수눔음돌봄공동체 정의

- ‘수눔음돌봄’은 일손이 부족한 제주지역 고유의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부상조 공동체 문화를 강조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의미가 담긴 ‘품앗이육아’와 유사한 자조모임의 돌봄 방식을 말함
- ‘수눔음돌봄공동체’는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자녀를 키우면서 서로 돌봄을 주고 받는 수눔음돌봄을 하기 위해 개인적 동기의 (조)부모들로 구성된 공동체팀 또는 팀의 구성원을 말함(약어 : 돌봄공동체 또는 공동체팀)

### ■ 수눔음돌봄공동체 변화 추이

- 제주지역의 양육친화 문화 조성 위한 수눔음돌봄공동체는 2016년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행정), 제주 가족친화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주민 간 긴밀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된 제주형 자녀 돌봄 지원 사업임
- 수눔음돌봄공동체는 공동체팀 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함
  - 활동장소는 공동체 구성원의 가정집, 놀이터, 운동장, 도서관, 수눔음육아나눔터, 오름 등 다양한 곳을 이용함
  - 활동방식은 공동체팀별 자녀 연령대 및 요구에 맞춘 주 1회 이상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부모들의 재능 나눔, 일상 돌봄, 방과후 돌봄, 방학 돌봄, 긴급 돌봄, 엄마교사 독후활동, 부모 직업체험 나눔 활동, 자연·환경 활동, 지역사회 자원과의 돌봄 연계활동, 장애·비장애 자녀 통합 활동 등 다양하게 진행됨
- 2023년 3월 기준 수눔음돌봄공동체는 96팀 497가족이 발굴·활동 중에 있음
  - 제주지역 돌봄공동체는 2016년 18팀(95가족), 2018년 55팀(365가족), 2020년 68팀(419가족), 2022년 78팀(474가족), 2023년 96팀으로 지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6년 사업초반 대비 약 5배 이상 증가함
  - 특히, 공동체팀 중 제주 선주민의 참여 비율 역시 2019년 52.4%, 2020년 61.0%, 2022년 62.4%로 지속 증가추세임

[ 그림 1 ] 제주지역 수눔음돌봄공동체 변화 추이 및 제주 선주민 참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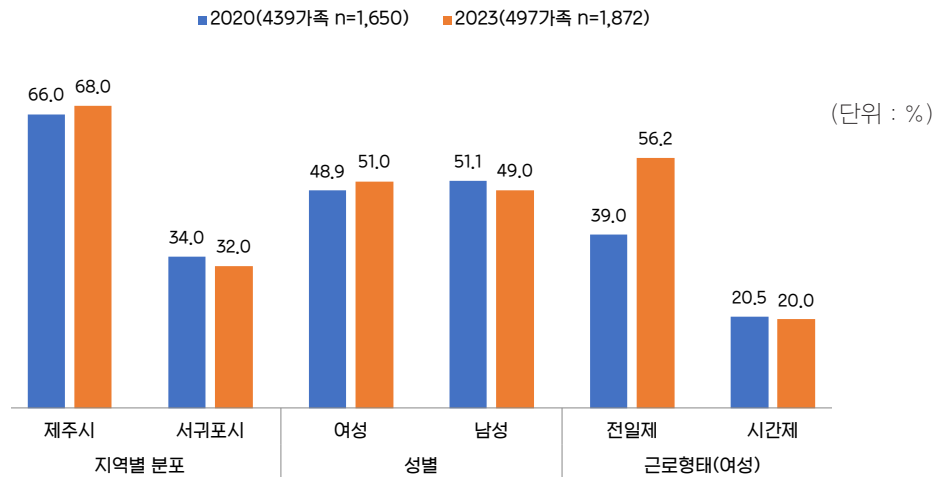


주 : 제주 선주민 기준은 부(모) 중 10년 이상 제주에 거주한 경우로 한정



- 2023년 수눔음돌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참여자 특성을 살펴보면 1,872명 참여(96팀, 497가족) 중 제주시 68%, 서귀포시 32%, 여성 51%, 남성 49%, 전일제 56.2%, 시간제 20%로 나타남
- 2023년과 2020년 참여자 특성을 비교한 결과, 2023년 돌봄공동체는 2020년 대비 참여 가족수는 58가족 더 높게, 참여자는 222명 더 높게, 여성은 0.1%p 더 높게, 근로형태는 전일제 여성 집단이 17.2%p 더 높게 파악됨

[ 그림 2 ] 제주지역 수눔음돌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참여자 특성(2020, 2023)



주1 : 2020년, 2023년 수눔음돌봄공동체 공모 사업 선정 현황(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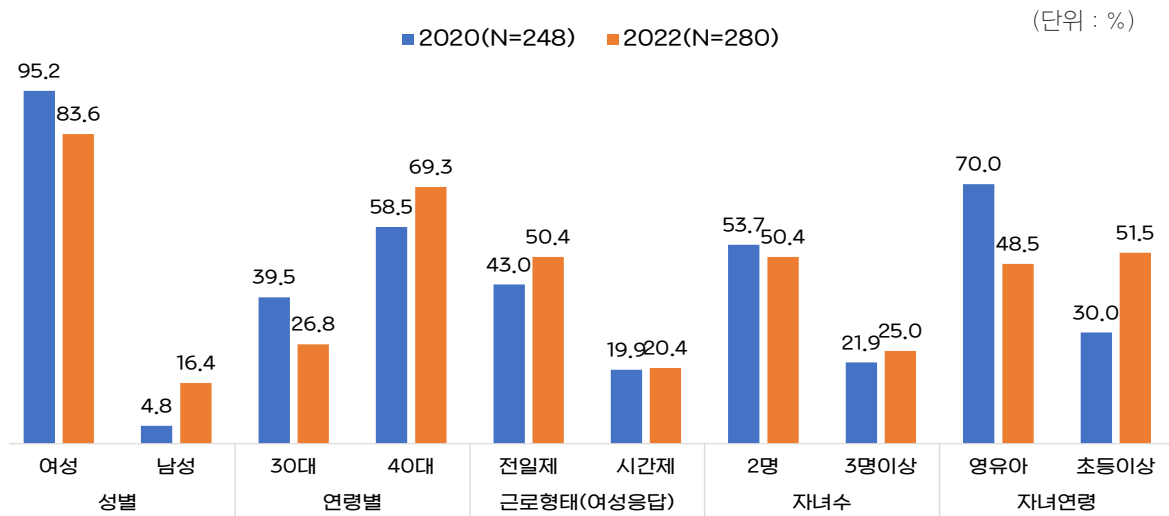
주2 : 근로형태의 전업주부(남편) 등 기타 형태는 제외함

### 3. 제주지역의 함께 자녀를 돌보는 수눔음돌봄공동체 특성

#### ■ 조사 개요

- 수눔음돌봄공동체 참여자 대상으로 2022년 11월 1일 ~ 11월 7일 사이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 응답자는 총 69팀(전체 참가팀의 약 90%) 280명이고, 여성 83.6%(234명) 남성 16.4%(46명)임
  - 연령대는 40대 69.3%로 가장 많고, 30대 26.8%, 50대 3.6%, 29세 이하 0.4% 순임
  - 응답 여성 중 근로형태는 전일제 50.4%, 시간제 20.4%, 전업주부 29.2% 순임
  - 자녀수는 2명 50.4%, 3명 이상 25.0%, 1명 24.6% 순이고, 그 중 장애 자녀 있는 경우는 11.1%임
  - 자녀의 연령대는 초등생 이상 51.5%, 영·유아 48.5% 순임
- 2022년과 2020년 동일조사 응답자 특성을 비교한 결과, 2022년 응답자는 2020년 대비 남성은 11.6%p 더 높게, 연령대는 40대 집단 10.8%p 더 높게, 근로형태는 전일제 여성 집단 7.4%p 더 높게, 자녀수는 3자녀 이상 집단 3.1%p 더 높게, 자녀연령대는 초등이상 자녀 집단 21.5%p 더 높게 참여한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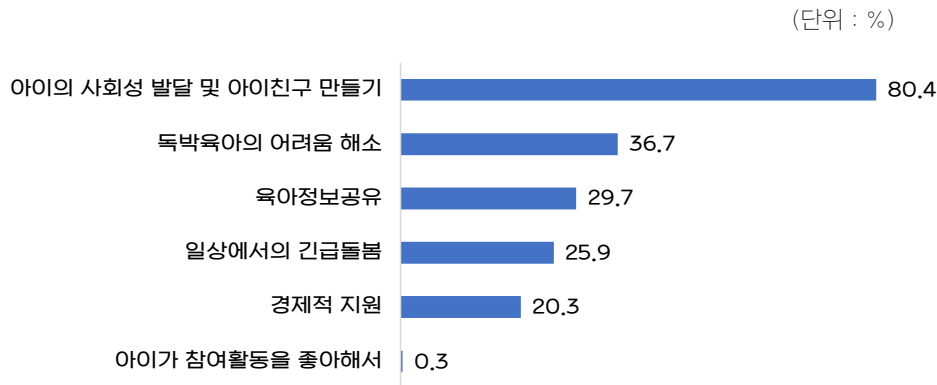
[ 그림 3 ] 수눔음돌봄공동체 참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2020, 2022)



■ 참여목적

- 수눔음돌봄공동체 참여 목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4%가 ‘아이의 사회적 발달 및 아이친구 만들기’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독박육아의 어려움 해소’ 36.7%, ‘육아정보공유’ 29.7%, ‘일상에서의 긴급돌봄’ 25.9%, ‘경제적 지원’ 20.3% 순임

[ 그림 4 ] 수눔음돌봄공동체 참여 목적(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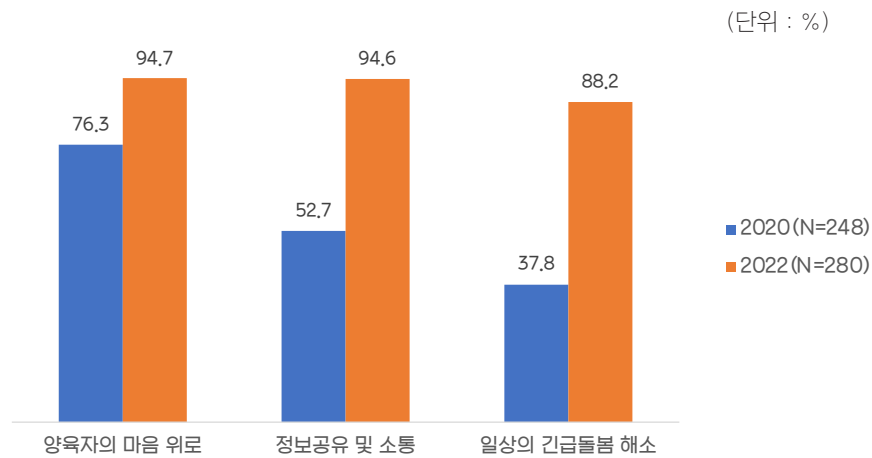


■ 자녀 돌봄 도움 정도

- 돌봄공동체 활동이 자녀돌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조금 도움+매우 도움), ‘양육자의 마음 위로’ 94.7%, ‘정보공유 및 소통’ 94.6%, ‘일상의 긴급돌봄 해소’ 88.2% 순으로 나타남. 특히 2020년 각 영역별 응답비율 대비 ‘일상의 긴급돌봄 해소’ 50.4%p 더 높게, ‘정보공유 및 소통’ 41.9%p 더 높게, ‘양육자의 마음 위로’ 21.1%p 더 높게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됨



[ 그림 5 ] 공동체 활동을 통한 자녀 돌봄 정도(2020,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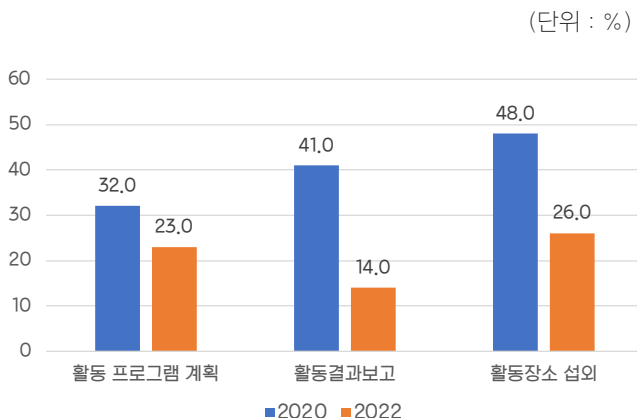


## ■ 공동체 활동기간 동안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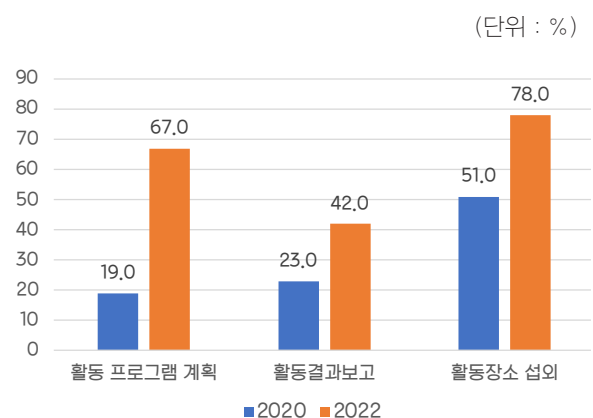
- 공동체 활동기간 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활동장소 섭외(연속팀 78% vs 신규팀 26%), 활동프로그램 기획(연속팀 67% vs 신규팀 23%), 활동결과 보고(연속팀 48% vs 신규팀 14%)순으로 나타남. 응답자들은 공동체 활동 과정에서 활동프로그램 기획, 활동장소 섭외, 활동결과 보고 등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됨
- 2022년 신규팀의 경우 2020년 신규팀 각 영역별 응답비율 대비 ‘활동결과 보고’ 27%p 더 낮게, ‘활동장소 섭외’ 22%p 더 낮게, ‘활동프로그램 기획’ 9%p 더 낮게 조사됨. 이는 선배 활동가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활동가왓수다’ 컨설팅 및 네트워킹을 통해 신규 참여팀이 공동체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멘토-멘티 방식의 활동가 컨설팅 강화는 물론 활동장소로서의 수놓음육아나눔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육아나눔터 이용정보 및 예약시스템 구축 등의 활성화 방안 모색이 요구됨

[ 그림 6 ] 공동체 활동기간 중 가장 어려웠던 점(중복응답 : 2020, 2022)

공동체 활동기간 중 가장 어려웠던 점(신규팀)



공동체 활동기간 중 가장 어려웠던 점(연속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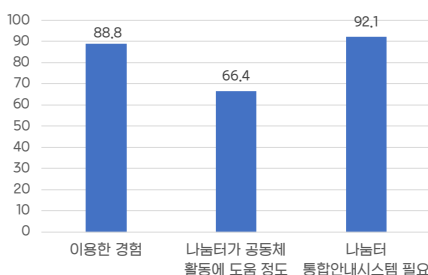
## ■ 수눔음나눔터 이용 경험의 어려움 및 정책 요구

- 나눔터 이용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8%가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수눔음육아나눔터 이용’으로 도움(조금 도움+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반면, 나눔터 이용에 있어서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1%가 ‘수눔음육아나눔터 통합 안내시스템 필요’라고 응답함
- 특히, 수눔음육아나눔터 이용에서 어떤 점이 불편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용시간대 불편’ 43.8%, ‘예약 어려움’ 17.5%, ‘공간구성 연령대 불일치’ 15.1%, ‘나눔터 정보 찾기 어려움’ 10%, ‘공동체 주활동지와 가까운 나눔터가 없어서’ 8% 순으로 응답함. 또한 나눔터를 언제 이용하는 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말’ 54.7%, ‘평일 오후’ 27.3%, ‘평일 오전’ 12.9%, ‘평일 저녁’ 5% 순으로 나타남
- 즉, 현재 수눔음육아나눔터는 운영 주체가 다양하고 운영방식, 공간 구성 및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이 상이함으로 인해 이용시간대, 공간예약, 연령대에 맞지 않은 공간구성 등 다양한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림 7 ] 수눔음육아나눔터 이용 경험(2022)

수눔음육아나눔터 이용 및 도움,  
수눔음육아나눔터 통합시스템 필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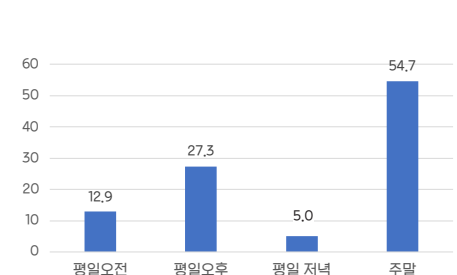
수눔음육아나눔터 이용에 불편한 점

(단위 : %)



나눔터 이용 시간

(단위 : %)



## ■ 돌봄공동체 온라인 커뮤니티의 변화

- 수눔음돌봄공동체 발굴·활동 지원 사업의 하위영역별로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움(조금 도움+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수눔음돌봄공동체 교육 및 네트워킹’ 94.0%로 가장 높고, ‘활동가 왓수다(컨설팅)’ 91.9%, ‘온라인 소통 플랫폼 봄톡 운영’ 71.7% 순으로 나타남
- 이는 2022년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수눔음돌봄공동체 발굴 및 지원현황을 통해 살펴본 결과, ‘교육’은 2020년 187명에서 2022년 447명으로 참여자가 증가한 것으로, ‘간담회 및 네트워킹’은 2020년 46명에서 2022년 403명으로 참여자가 증가한 결과와도 맥락이 예측됨
- 특히,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도부터 추진된 육아정보 나눔 온라인 소통 플랫폼 ‘봄톡’ 운영이 돌봄공동체의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개했던 것으로 파악됨



[ 그림 8 ] 공동체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도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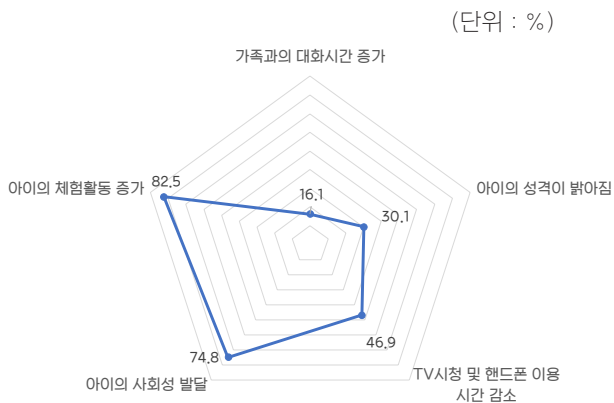


### ■ 수놓음돌봄공동체 활동으로 인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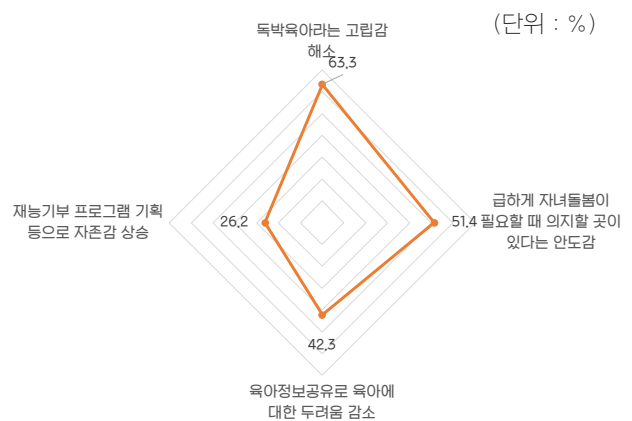
- 돌봄공동체 활동으로 인한 아이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아이의 체험활동 증가’ 82.5%, ‘아이의 사회성 발달’ 74.8%, ‘TV시청 및 핸드폰 이용 시간 감소’ 46.9%, ‘아이의 성격이 밝아짐’ 30.1%, ‘가족과의 대화시간 증가’ 16.1% 순으로 응답함
- 또한 공동체 활동을 통한 나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독박육아라는 고립감 해소’ 63.3%, ‘급하게 자녀돌봄이 필요할 때 의지할 곳이 있다는 안도감’ 51.4%, ‘육아정보공유로 육아에 대한 두려움 감소’ 42.3%, ‘재능기부 · 프로그램 기획 등으로 자존감 상승’ 26.2% 순으로 나타남
- 즉, 응답자들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아이는 사회적 발달과 성격이 밝아지는 등의 건강한 발달이 촉진되고, 양육자들은 독박육아 해소 및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자원이 형성되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그림 9 ] 공동체 활동을 통한 아이의 변화 및 나의 변화

#### 공동체 활동을 통한 아이의 변화



#### 공동체 활동을 통한 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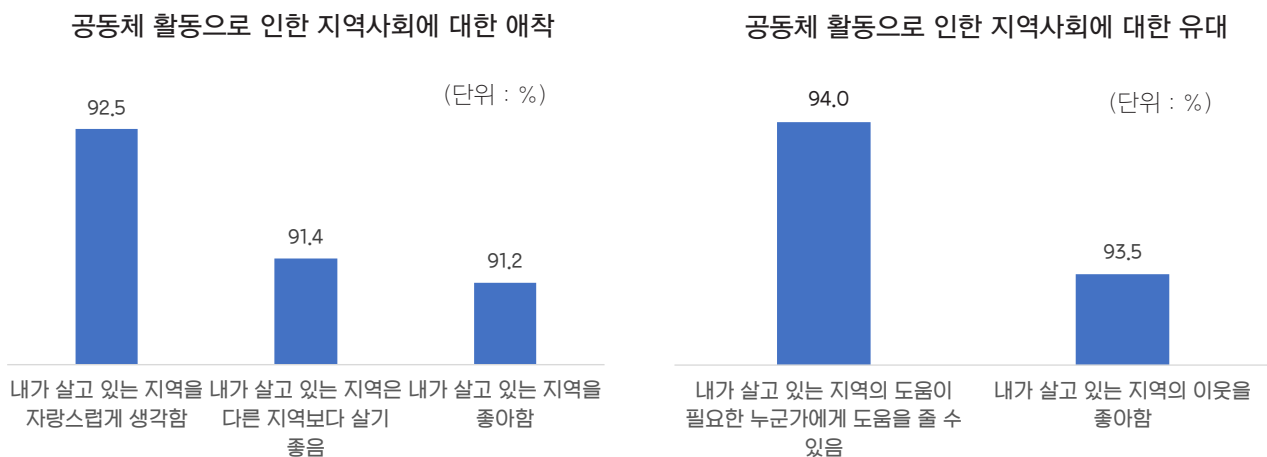




## ■ 공동체 활동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의식의 변화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애착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든 하위영역별로 90% 이상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함(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자랑스럽게 생각함 92.5%,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살기 좋음 91.4%,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좋아함 91.2%). 또한 지역사회와의 유대감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든 하위영역별로 90% 이상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함(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94%,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웃을 좋아함 93.5%)
- 이는 수놓음돌봄공동체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유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이를 통해 이웃과의 연대와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서 공동체 의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그림 10 ] 공동체 활동으로 인한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 및 유대 변화



## 4. 논의 및 정책 시사점

### ■ 가족단위의 돌봄공동체에서 마을돌봄공동체로의 확장 필요

- 돌봄공동체 활동이 자녀돌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보 공유 및 소통,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 일상 긴급 돌봄 해소 순으로 나타남. 특히, 일상 긴급 돌봄 해소는 2년 사이 50.4%로 급격히 증가됨. 이는 코로나 19 및 이후도 돌봄공동체 활동이 자녀 돌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됨
- 수놓음돌봄으로 성장한 아이들과 양육자들이 공동체 활동으로 변화된 점에 대해 아이는 사회적 발달과 성격이 밝아지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양육자들은 독박육아 해소 및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보완했던 것으로 조사됨. 이는 돌봄공동체 활동경험에 의해 그 속에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즉, 공동체 활동 경험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 애착이 생기면서 내 아이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까지 함께 키우며 지역사회 중심으로 촘촘한 돌봄 문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다년간 수눔음돌봄 사업 참여자들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영아에서 유아로, 유아에서 초등으로, 초등에서 청소년으로 대상자의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향후 미래 청년으로까지 돌봄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수눔음돌봄 활동의 범위 확장이 필요함
- 따라서 중학생이 되면서 돌봄공동체 참여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미래에 돌봄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공동체와 지역사회와의 연대협력을 통해 마을 중심의 확장형 돌봄공동체 발굴·지원 확대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 또한 참여기준인 0~13세 기준을 확장하여 수눔음돌봄에 대한 욕구가 있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여김

### ■ 돌봄공동체 온라인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가칭‘봄톡’운영 활성화 필요

- 2021년 2월부터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수눔음돌봄사업 참여자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수눔음돌봄공동체 간의 활동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목적으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가칭 ‘봄톡’을 운영하고 있음. 2023년 4월 현재 1,195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음
- 온라인 소통 플랫폼 봄톡 운영이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7%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봄톡’은 지역사회 양육자 육아소통 플랫폼으로서 돌봄에 대한 정보공유 뿐만 아니라 수눔음돌봄 사업 홍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 즉, 봄톡을 매개로 공동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은 물론 네트워크 참여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이에 온라인커뮤니티 봄톡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다양한 콘텐츠 개발, 카페 외부에서의 마케팅 활동, 이용 편리성 등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담당 인력 확보 등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함

### ■ 수눔음돌봄 참여자를 위한 단계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수눔음돌봄공동체 활동을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변 소개 및 주변의 공동체 활동을 보고 참여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이는 사업 참여자들이 육아하는 지인들에게 돌봄공동체 참여를 권유하고, 경험을 전수하여 함께하는 돌봄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수눔음돌봄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민, 신규 공동체팀, 기존 공동체팀 참여자들 대상으로 단계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 수눔음돌봄 활동가 역량강화 필요

- 공동체 활동기간 중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한 결과로 활동프로그램 기획, 활동장소 섭외, 활동 및 지출 보고 순으로 나타남. 이는 공동체 활동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로 공동체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결과임

- 이에 공동육아 선배인 수눔음 활동가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활동가들은 수눔음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사례를 공유하고, 노하우를 전수하여 '육아나눔 사람 책'과 같이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활동가 역량강화, 신규 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지역 중심의 소집단 멘토 교육 등 다양한 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요구됨
- 예를 들면, 수눔음돌봄 활동가 대상 돌봄과 관련한 놀이기획, 문화기획, 예술 및 체육 프로그램 기획 과정 등의 현장 요구에 맞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 지원방안 모색이 요구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활동가들은 경험 노하우가 역량이 되어 돌봄과 관련된 취업 혹은 돌봄사회적협동조합 등 돌봄을 매개로한 일자리 혹은 창업 등 성장의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 수눔음육아나눔터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수눔음육아나눔터는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돌봄문화확산, 자발적 돌봄나눔 기반 조성을 위해 마을회관,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지역의 유휴공간에 수눔음육아나눔터를 조성해 옴. 육아나눔터는 지역주민이 운영의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공간이기도 함. 육아나눔터 운영 방식은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되어 수눔음육아나눔터별로 운영시간과 이용방법이 다를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수눔음돌봄공동체 참여자 대상으로 나눔터 이용에 대한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용시간대 불편, 예약 어려움, 공간구성 연령대 불일치, 나눔터 정보 찾기 어려움, 공동체 주활동지와 가까운 나눔터가 없어서 순으로 응답함. 또한 공동체 활동기간 중 신규팀 및 연속팀 모두 활동장소 섭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수눔음육아나눔터는 운영 주체가 다양하고 운영방식, 공간 구성 및 시설관리 등이 다름에 따른 결과로 예측됨. 즉, 나눔터 운영에 대한 표준 매뉴얼이 부재하고 나눔터별 운영진의 공간 운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시 말해 수눔음육아나눔터 통합 안내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92.1%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와 맥락이 일치함. 따라서 육아나눔터 소개, 위치, 이용연령층, 시설안내, 온라인 예약 시스템 등을 포함한 나눔터 통합 안내시스템 구축 및 관련 활성화 방안 모색의 정책연구 수행이 요구됨

### ■ 돌봄공동체 활동 기반으로 양육친화 지역사회 문화 확산 필요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애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자랑스럽게 생각함,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살기 좋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좋아함 순으로 나타남. 이는 돌봄공동체 참여를 통해 나의 가족 중심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면서 나타난 지역애착의 효과일 것임



- 이러한 결과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유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웃을 좋아함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맥락이 같음. 즉, 응답자들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유대가 더욱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자녀돌봄을 위해 시작한 수놓음돌봄공동체 활동 자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기획, 활동장소 섭외, 활동기록, 의사소통 등을 필요로 하고, 그러한 경험활동의 산물로 다양한 방식의 실천들이 돌봄 나눔을 더욱 활발하게 촉진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공동체 구성원간의 활발한 지역사회 다른 이웃들에 대한 상호작용이 서로의 경험과 견해 등의 차이를 수용하고 학습하게 되면서 지역사회 다른 이웃들에게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데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선순환되고 있다고 판단됨
- 하나의 예로, 수놓음돌봄공동체 참여팀들이 도민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으로 봉그깁왓수다, 재능나눔의 문턱없는 재능왓수다 등의 활동은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점임. 이처럼 돌봄공동체는 일상의 돌봄을 나누는 품앗이 활동뿐만 아니라 공동체 운영 역량, 활동기획 역량으로 지역사회 돌봄과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로 확장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돌봄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의 연대·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공동체 참여자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의 기회를 통해 양육친화 지역사회 문화 조성을 견인하는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함

## ■ 지역사회 수놓음돌봄 문화 확산에 따른 지자체의 적극적 대응방안 강구 필요

- 2021년 기준 제주는 맞벌이 가구 비율이 61.4%로 전국평균 맞벌이 비중(46.3%) 보다 15.1%p 더 높은 지역임. 즉, 맞벌이 가구 비율이 높은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자녀돌봄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맥락에서 수놓음돌봄공동체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이 2020년 59.5%에서 2023년 76.2%로 증가 추세인 점은 수놓음돌봄을 통해 양육자들이 주체적으로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반영된 결과일 것임
- 특히,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2022년 출생아 수는 3,6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2021년(0.95명) 대비 0.03명 더 낮아져 저출생 대응 방안 모색이 시급함. 따라서 저출생 대응 및 제고 방안으로 양육친화 문화 조성을 선도해 나가는 돌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적 대응 방안 강구가 요구됨

